

이름

우리는 바라거나 구하는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들이 무리를 지어 머무는 마을에서 만났다. 그는 사람을 억지로 웃도록 만드는 불편한 재주를 가진 이가 그곳의 이름을 지었다는 말로 나를 맞았다. 나는 그 말에 억지로 웃지는 않았지만 조금 불편하기는 했다. 그 말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말로 그날을 시작하게 되어 불편해졌던 것이다. 불편함은 금세 편해지기도 하고 결국 불편함으로 남기도 한다. 그와 나는 이러한 이치를 알 만한 정도의 사람이었고 그리하여 곧 여러모로 적정 거리를 유지해가며 말을 나누게 되었다. 일단은 불편함을 지속해줄 음식을 먹기로 했다. 섬이라 불려야 마땅할 반섬에서 대륙의 음식은 근거 없는 특별함을 일상에 부여하는 속성을 지녔고 그 특별함을 취한 사람들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부 내장 기관의 불편함을 곧잘 감내해낸다. 그는 균류가 번식한 요리를 택했고 나는 흰 국물을 골랐다가 붉은 국물로 바꿨다. 그 결과 불편함이 증폭되었다.

우리는 증폭된 불편함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편으로 동산에 올랐다. 이름을 남긴 자를 따라 싸워 역시 이름을 남긴 자의 무덤 뒤로 좁은 길이 나 있었다. 좁은 길을 여러 차례 가본 그가 앞섰고 좁은 길을 몇 차례 가본 내가 뒤따랐다. 길은 계속 좁았다. 발을 디딜 때마다 작은 열매들이, 열매로 추정되는 것들이 밟혔다. 그는 열매를 두 차례 주워 건넸다. 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동산이 뷔트 쇼몽을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나 내가 뷔트 쇼몽에 올랐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이름을 단 곳에서 일주일간 머물다 그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아름다운 마을을 아름답게 만든 언덕으로 향했지만 일 년간 보수한다는 안내문이 놓인 입구에서 서성이고 말았는데, 그래도 그날은 비가 왔었고, 비에 젖은 뷔트 쇼몽을 보기는 했었는데, 이러한 생각을 문득 입밖에 꺼내게 됐다. 좁은 길을 걷는 일은 그러했다. 이날은 건조했다. 건조한 흙길은 축축한 흙길보다는 나을 듯했지만 그래도 미끄러웠기에 땅을 유심히 보며 걸어야 했는데, 그렇게 계속 흙의 색을 보게 되자 『질량과 질서 2』라는 책이 떠올랐다. 코펜하겐에서 활동하는 작가 소렌 안드레아센도 서울에서 흙색 표지를 갖게 된 이 책에서 산에 올랐다. 그때는 2월. 겨울이었다. 지금은 10월. 가을이다. 나는 가을 초입에 우연히

소렌을 만나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그의 책을 읽지 않아 아무 말도 나누지 못했고 불편하다면 불편한 상태로 헤어졌다. 이제 그의 책을 읽은 나는 『질량과 질서 1』이 궁금해졌지만 아직 그 책을 구해보지는 않았다. 즉 궁금함을 적절한 정도로 조정하는 중이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나도 그를 따라 “정확한 규모와 운동의 세계”에 머물 수 있게 될까?¹ “나 여기에 있어.”²

산중턱에서, 앞뒤로 걷던 우리는 서로를 옆에 두고 걷게 되었다. 그는 이 길이 아픈 사람들이 걸어온 길이라는 말을 건넸다. 그는 오래 아팠다. 그래서 그 길을 자주 걸었다. 동산은 대개 마을의 작은 산이나 언덕을 일컫는 말이지만 큰 집의 정원에 조성된 작은 산이나 숲을 가리키기도 하며, 나아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곳을 이르기기도 한다. 집에 정원이 있고 정원에 산이나 숲이라 부를 만한 것이 있다면 과연 그러하리라. 그의 집에는 정원이 없었다. 나의 집에도 정원이 없었다. 작업실에는 마른 꽃다발을 두 개 두었는데 그중 하나는 서랍에 든 네 해짜다. 집에는 작은 고무나무를 들이게 됐다. 일곱 번 걸은 결과다. 사람이라면 일곱 번은 걸어야 걸었다고 할 만하다. 아픈 사람들은 일곱 번 걷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일곱 번을 걸으면 일곱 번 걸은 사람이 된다. 정 어렵다면 일곱 사람이 한 번씩 나누어 걸어도 된다. 안 될 이유가 없다. 즉 일곱 번 걸어볼 생각을 해보느냐 아니면 생각해볼 생각조차 해보지 않느냐 하는 문제다. 나는 지금 아프지 않다. 건강한지는 아직 모른다. 겨울이 오면 알게 된다. 나는 일곱 번을 걸었다.

서랍에, 마른 꽃만 두지 않았다. 마른 열매도 있다. 역시 네 해짜다. 그 열매는 크다. 보다 정확히는 열매의 시체라 불러야 옳다. 그가 막 건네준 열매 두 개 중 하나는 깨졌다. 다른 하나는 정말 작다. 작아서 예쁜 부류다. 이름 없는 열매. 이름 없는 무덤. 동산의 비탈에 모여 있던 봉오리들은 아주 작았고, 그래서 어린아이나 개의 무덤으로 여겨졌다. 묘비가 없어 그들의 이름을 알 수 없었다. 내 개는 죽으면 어디에 묻어야 할까. 내 개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곧 동산을 떠났다. 동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닿자 불편함이 상당히 가셨다. 그와 나는 이름 없는 동산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이름 아래 생산된 열매들에게 관심을 표하기로 했다. 동산 근처에 제법 규모 있는 시장이 서 있었고, 생산자의 이름을 명찰로 단 각종 열매들이 그곳에 있었다. 나는 두 종을 고른 후 그중 하나를 그와 나눠 가졌다.

서랍에는 마른 꽃, 마른 열매, 그리고 마른 종이 뭉치가 있다. 역시 네 해짜다. 서랍을 열어볼 생각은 좀처럼 들지 않는다. 얼마나 말라 비틀어졌는지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다. 그 자리에 있음은 잘 알고 있다. 종이 뭉치에는 글자들이 인쇄되어 있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죽은 이야기들이다. 세상에 나오기 전에 죽는 편이 나왔을지, 세상에 나오고 나서 죽는 편이 나왔을지, 이미 내 손에 죽음을 맞이한 말들의 운명에 대해 나는 아는 바가 없다. 아는 바 없이 말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 위에서 말들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형식은 가장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형식이 필요하다.

불편함이 완전히 가셨고, 우리는 헤어졌다. 집에 돌아온 나는 바라거나 구하는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들이 모여 이룬 줄 알았던 마을이 실은 집들이 점차
번성하리라는 바람 아래 이뤄진 마을이었음을 알았다. 또한 사람을 억지로 웃도록
만드는 불편한 재주를 가진 이가 그곳의 이름을 짓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 불편함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또한
자신의 동네가 그곳에 머물러 사는 것을 다행히 여기고 서로 믿으며 살라는 이름을
지냈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 나는 그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주지 않을 작정이다.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동산에서, 행복의
경지에까지는 다다르지 못했는지언정 최소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1 소렌 안드레아센, 『질량과
질서 2』, 정주영 옮김, 서울:
미디어버스, 2016, 32쪽.

2 같은 책, 27쪽.